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설 맞이 전통시장 등 먹거리 안전 점검

정읍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예방하고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생화차의 안전한 소비를 위해 철저한 위생 관리를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시 보건소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나서 총 2개 반 9명이 점검을 담당한다. 이들은 대형마트 및 기타식품판매업소 28개소, 전통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89개소, 생화차 판매 식품접객업소 2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원료보관실·제조 가공실·포장실의 청결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 행위 △원재료 사용 적정성 △부정·불량식품 판매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등이다. 또한, 다소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거·감사도 병행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화재예방 합동점검

부안군은 지난 17일 설 명절을 맞아 부안상설시장, 읍포상설시장, 곰소항수산물종합시장을 찾아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화재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화영 부안군 부군수, 부안소방서 관계 공무원과 시장상인회장, 분야별전기·가스·소방·건축) 전문가들이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겨울철 전열기구 및 난방기 사용 실태 등 화재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특히 점검에서는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전통시장 상인회 중심의 자율방재체계를 강조, 소방시설 작동 및 관리상태 확인, 소방통로 확보 협조 안내, 상가 내 가스·전기 시설, 주요 구조물 균열 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즉시 시정가능한 부분은 현장 조치했고 일부 미비점은 전문업체를 통해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사전 예방 감사로 예산 20억 절감

정읍시, 지난해 재정 운용 모범 보여...올해 시민 체감형 혜택 늘려

정읍시가 주요 사업의 사전 예방 감사로 건전한 재정 운용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20억원의 예산 절감을 기록한 시는 올해에도 더욱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시민 체감형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사전 예방 감사는 주요 사업의 적법성과 원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지난해 시는 총 1766건의 사업을 심사해 재정 효율을 높였다. 분야별로는 공사 분야에서 1397건을 심사해 17.9억 원, 용역 분야에서 341건을 심사해 2억원, 물품 등 기타 분야에서 28건을 심사해 1000만원의 예산을 각각 절감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는 주요 업무 집행 전에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원가 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행정적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1000만원 이상 소규모 공사와 민간자본 보조사업에도 사전 심사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술 분야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감사 사례 및 청렴교육을 시행해 건설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다. 특히 지난해에는 해빙기와 우기철을 중심으로 건설 현장 기동감찰을 외부 감사원과 합동으로 실시해 건설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한 행정 활동을 펼쳤다. 이학수 시장은 “올해도 내실 있는 사전 예방 감사를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의 누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절감된 예산이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활력수당’ 확대

반일제 근무자까지 포함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대표 공약사업인 ‘사회복지 종사자 활력수당’이 설 이전 지급된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설 이전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활력수당(총 1억3000여 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활력수당은 사회복지시설 101개소 1700여명에게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분야 수행기관 종사자 등

으로 2025년 1월 현재 고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4대보험에 가입된 전일제 및 반일제 근무자다. 특히 올해는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현장중심의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등 반일제 근무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전년도에 전일제 근무자(연10만원)에게만 지원했던 활력수당을 반일제 근무자(연5만원)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많은 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사회복지 활력수당은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민선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사회복지분야 대표 공약사업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일선에서 국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자기 진작을 통해 고창군의 복지 서비스가 더욱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시민들과 함께 숨은 ‘찐 맛집’ 찾기 나선다.

정읍시가 시민들과 함께 숨은 ‘찐 맛집’ 찾기에 나선다. 음식문화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시는 변화하는 음식문화 트렌드에 발맞춰 숨어있는 찐 맛집 찾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정읍의 숨은 맛집을 발굴하고, 지역 음식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먼저 20일부터 2월 말까지 ‘찐 맛집 찾기 온·오프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설문조사에서는 시민들이 추천하는 맛집, 선호 메뉴, 추천 이유 등을 묻는다. 설문 결과 상위 10개 맛집은 심사과 정에서 가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정읍민의 특별한 맛집 지도가 완성될 예정이다. 온라인 설문은 시 공식 SNS 채널과 홈페이지에서 배포되는 ‘네이버 폼 설문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설문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읍시지부에서 배부하는 설문지를 작성하면 된다. 이어, 2월부터 11월까지의 시민들의 SNS 참여를 유도해 홍보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읍 맛집 내돈내산 탐방기’ 이벤트가 진행된다. 시민들은



일반음식점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과 이용 후기를 개인 SNS에 올리고 네이버 폼을 통해 인증하면 된다.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들의 손으로 숨은 맛집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일선음식점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과 이용 후기를 개인 SNS에 올리고 네이버 폼을 통해 인증하면 된다.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들의 손으로 숨은 맛집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부안군, 농업인 경영 안정 도모 · 가격 경쟁력 제고 위해 추진

부안군은 전자상거래로 소비자에게 유통·판매하는 택배비를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농특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산물을 자체 생산하는 관내 거주 농업인과 농업법인인 소비자에게 유통·판매하는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총예산은 900만원으로 택배비 1건당 2000원 정액 지원이며 대상자별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산자 직

거래 비대면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 향상, 농가 경영 안정 도모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안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상원 농촌활력과장은 “이번 사업이 부안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농업인과 업체가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심원하전지구’ 주민설명회

고창군, 지적재조사 사업 토지소유자 · 이해관계인 대상

고창군이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자인 심원하전지구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전날(16일) 열린 주민설명회는 해당 지구 필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각각 심원면 상전·동전·서전 마을회관에서 진행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과 실시계획 안내, 경계 결정 기준 및 조정금 산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설명했다. 고창군은 올해 심원하전지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 5개 지구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 개별 통지 등을 통해 주민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을 추진중이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선정되면 현실경계 기준으로 새롭게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게 된다. 이웃 간 경계분쟁 및 땅지가 해소되고, 불합리한 토지 경계가 조정되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토지의 가치 상승에 크게 기대할 수 있다. 고창군은 지적재조사사업 20개 지구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시작한 곰소상평지구 등 5개 지구는 지적 경계를 확정중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축사화재 예방 1억6000만원 투입

정읍시가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올해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축산 농가에 화재 감지 및 초기 진압 장비를 지원해 대형 재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축사화재 안전시스템은 전기 과열, 과부하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은 축사와 부속시설(관리사, 창고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발생 시 초기 진압을 통해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와 곤충 사육업 신고 농가를 대상으로 총 40농가에 자동화재

속보설비, 야크차단기, 자동 소화장치, 열·연기·정전 감지기 등 화재 예방 장비 설치비를 농가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설치비의 50%를 보조하며 농가의 모든 축사동(관리사 포함)에 설치하는 경우 우선 지원된다.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최근 축사뿐만 아니라 부속시설에서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